“공간정보 기반 국토·도시계획 확대돼야”

국회서 ‘디지털 대전환 공간정보산업 도약 대토론회’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한 뜻’… 업계 진입장벽 낮춰야

국회·국토교통부,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주관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국토교통부,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주관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를 뜨겁게 달군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열풍이 올해 더 거세질 전망이라며, 공간정보가 디지털트윈·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 데이터로 부각되는 가운데,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 입을 모았다.

빅밸류 구름 이사는 “국가공간정보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하는 가치가 매우 높은 데이터”라며 “더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는 일보다 데이터 완성도를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토연구원 김대종 디지털트윈연구센터장도 “데이터 생산체계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데이터가 중복 생산되고 융·복합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디지털트윈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계점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됐다. 대안으로는 ▲공간정보 기반 도시·국토관리 필요성 확대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공간정보 혁신 생태계 구현 ▲공간정보산업 진입 문턱 낮춰서 소확행 성공 사례 구축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간정보산업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서울시립대 이임평 교수는 “정부가 스타트업도 공간정보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처리·분석·가시화하는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지스 김순한 이사도 “정부가 플랫폼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기반이 되는 기술은 국산 기술이 거의 없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공간정보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응천·김교흥·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등 국회 및 공간정보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최대희 기자

전개공, 공기업 경영평가 주민 참여단 공개 모집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할 주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시범 도입·확대 시행중인 주민참여단은 지역 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해 평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제고 및 소통,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창출 나아가 ESG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전북도민의 참여가 주민 친화적 지방공기업,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공모를 통해 선정된 4명은 행정안전부에 평가위원 후보로 추천되며, 행정안전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된 최종 2명이 2022년 전북개발공사 경영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은 전자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및 전북개발공사 혁신기획파트(063-280-7433)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실크로드 슬로프 추가 오픈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이 국내최장 코스인 실크로드 슬로프를 추가로 오픈했다. 지난해 오픈한 실크로드 하단에 이어 20일(목) 실크로드 상단 슬로프를 오픈하며 국내에서 가장 긴 6.1km 길이의 스키코스를 즐길 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실크로드 코스는 해발 1520m의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시작되므로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즐거움과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급자가 실크로드를 이용할 경우 97 동계 U대회 때 슈퍼지 경기용으로 사용되었던 미뉴에트 코스를 타고 내려오다 실크로드 중간 지점으로 빠져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스키실력이 상급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코스이다.

실크로드 슬로프를 이용하려면 15분 정도 곤도라를 타고 한번에 올라가는 방법과 코러스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하모니리프트로 갈아타고 다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곤도라를 이용하면 확 트인 경관과 함께 덕유산이 선사하는 눈꽃과 설경도 즐길 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담당자는 “실크로드는 코스의 난이도가 매우 조화롭게 짜여져 있어 초·중급자에게 모두에게 알맞은 코스”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스키어들이 안심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설 명절 과일 재고·수급 ‘문제 없다’

익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서
전북농협, 상황 점검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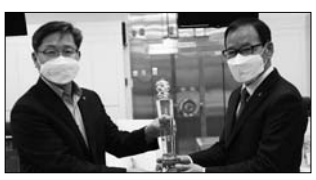
전북농협은 설 명절 기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성수 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난 20일 익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 과일 재고현황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설 명절 기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성수 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난 20일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 산지유통센터를 방문, 과일 재고현황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농협은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성수품목인 채소(무·배추), 과일(사과·배), 축산물(소·돼지·닭·닭갈) 등 8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 농산물 계약재배물량은 최대 2.5배, 축산물공판장의 도축물량은 최대 1.5배까지 확대 공급한다.

또한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합리적 가격의 중·소과 한손과일(사과, 배,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 10만개를 20% 할인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달 31일까지 특별판매행사를 통해 주요 농·축산물, 제수용품, 설 선물세트 등 1,500여개 품목에 대해 시중가 대비 10~3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돼 농축산물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며 “농협은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할인 판매로 소비자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설 명절 개인카드 고객들을 위해
전은, ‘설 어서호랑’ 이벤트
주요 대형마트 선물세트 할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설 명절을 맞아 개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JB카드 설 어서호랑’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누적 30만 원 이상 이용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등(골드바 2명), 2등(4만원), 3등(2만원), 참여상(1만원) 등 총 222명에게 골드바와 설 세뱃돈을 증정한다.

또한 주요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 선물세트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온라인몰을 포함한 전 매장에서 주요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구매 시 현장할인과 선물세트 구매 금액별 상품권을 증정하며,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도 제공된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JB카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농작업자 미세먼지 노출 특성·저감 방안, 책으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작업자의 작업별 미세먼지 노출 특성과 노출 저감 방안을 담은 ‘농작업자 미세먼지 노출 특성 및 저감 방안’을 발간했다.

지난 21일 농진청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으며,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작목과 작업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이달의 신간에서는 이에 따라 수확(벼, 파, 고구마, 오이), 경운정지(생강, 고구마, 토마토), 비료 살포(생강, 배), 선별(복숭아), 축산(양계) 등 주요 농작업에서의 미세먼지 노출 수준과 발생 특성을 소개하고, 농작업별로 미세먼지 노출 수준에 따라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 권장, 필수로 나눠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작업(작목)은 수확(벼, 파, 오이), 경운정지(토마토), 잎 따기(딸기), 선별(복숭아), 축산(양계)이다. 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종류(면 마스크, KF80, KF94)에 따른 미세먼지 노출 저감 효율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양계 작업이나 콤바인 작업을 할 때는 KF94 마스크 활용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복숭아 선별과 같은 실내 작업 중 사용할 수 있는 환기 장치와 집진 설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책자는 농촌진흥기관과 관련 전문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과 농업인 안전365(farmer.rda.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개정
새만금청, 오늘부터 시행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작년 2월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새만금은 다수의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토대로 사업지역 일부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승인을 받아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조항으로는 먼저,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하고, 내실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뒀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역별로 계획안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명품도시 계획이 가능해졌다.

한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개정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의 고객지원(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부안농협, 금융자산 5천억원 달성탑 이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을 방문해 농협상호금융 ‘금융자산 5천억원 달성탑’ 전달식을 가졌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농협상호금융 ‘금융자산 달성탑’은 매 분기 말 기준 총 예금과 상호금융대출금을 합산해 일정 금액 달성 시 수여되며, 지역 농·축협의 건전 경영과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원철 조합장은 “이번 금융자산 5천억 원 달성은 부안농협을 믿고 이용해주신 조합원과 고객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나날이 어려워지는 금융환경을 고려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 조합원 복지증진과 고객 만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부안농협 전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의 성장·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서남권역 제조업체 100곳 “설 경기 지난해와 비슷”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는 2022년 설 명절을 앞두고 관할지역(정읍·김제·고창·부안) 10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설 명절 공장 가동 및 상여금 지급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휴무 기간은 100개 제조업 중 86개 업체가 휴일 포함 5일 휴무한다고 답했고, 14개 업체는 주문량과 설비유지를 위해 공장을 가동 한다고 답했다.

상여금 지급 관련 질문에는 지급한다. 64곳, 지급하지 않거나 미정이 36곳으로 나타났다.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 64곳 중 기본급 대비 50% 지급이 4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 지급이 9곳, 기타 및 10~30% 지급한다가 6곳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90개 업체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졌다. 고 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T, 폐쌀포대 업사이클링 가방 판매 수익금 기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는 폐쌀포대를 재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파우치백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지난 21일 국제구호단체 러브씨드(대표 김훈)에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하루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힘든 케냐 원주민들에게 옥수수가루, 콩 등 식량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공사는 우리쌀 5만 톤의 해외 식량원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폐쌀포대를 100% 재활용해 업사이클링 파우치백을 제작했으며,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매했다. /최대희 기자